

## 창세기와 요한계시록

창세기는 요한계시록을 지향(指向)한다.  
그러므로 창세기는  
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해석(解釋)하는 것이 옳다.

###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

<p>(창 1:1)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</p>	<p>(계 4:10)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(계 4:11)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</p> <p>(계 20:11)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</p> <p>(계 21:1)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</p> <p>(계 21:5)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**그 성은  
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**

<p>(창 1:3) 하나님이 이르시되 <b>빛이 있으라</b> 하시니 빛이 있었고</p>	<p>(계 21:23)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                 (계 21:24)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                 (계 21:25)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                 (계 22:5)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</p>
---	--

**선악과와 생명나무**

『새 하늘과 새 땅』에는 더 이상 『선악과』가 없고 오직 『생명나무』만 있다. 『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』의 신부(新婦)인 성도들이 십자가의 구원(救援)으로 『선악과』의 시험을 모두 통과하였기 때문이다.

아담의 범죄 이후에 접근(接近)이 금지(禁止)되었던 『생명나무』가 『새 하늘과 새 땅』에서는 항상 성도들에게 개방(開放)되어 있다.

『새 하늘과 새 땅』에서 성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(生命)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(交際)한다.

<p>(창 2:9)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</p> <p>(창 3:22)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</p> <p>(창 3:24)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</p>	<p>(계 22:1)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</p> <p>(계 22:2)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</p>
<p>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</p>	
<p>(창 2:10)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</p> <p>(창 2:11)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돌렸으며</p> <p>(창 2:12)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</p> <p>(창 2:13)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돌렸고</p>	<p>(계 22:1)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</p> <p>(계 22:2)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</p> <p>(계 21:6)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</p>

<p>(창 2:14)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앓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</p>	
<p><b>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</b></p>	
<p>(창 2:19)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</p>	<p>(계 20:6)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</p> <p>(계 22:5)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</p>
<p><b>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</b></p>	
<p>(창 3:1)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</p> <p>(창 3:4)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</p> <p>(창 3:5)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</p>	<p>(계 12:1)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</p> <p>(계 12:2)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</p> <p>(계 12:3)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</p>

<p>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</p> <p>(창 3:15)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</p>	<p>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(계 12:4)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</p> <p>(계 12:5)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</p> <p>(계 12:6)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할 때 거기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</p> <p>(계 12:7)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</p> <p>(계 12:8)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</p> <p>(계 12:9)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</p> <p>(계 12:10)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</p> <p>(계 12:11)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</p>
---	--

	<p>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</p> <p>(계 20:1)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</p> <p>(계 20:2)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</p> <p>(계 20:3)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</p> <p>(계 20:7) 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</p> <p>(계 20:8)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</p> <p>(계 20:9)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</p> <p>(계 20:10)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</p> <p>(계 20:14)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</p>
--	---

## 다시 저주가 없으며

(창 3:17)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**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**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 
 (창 3:18) **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**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 
 (창 3:19)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

(계 22:3) **다시 저주가 없으며**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 
 (계 22:4)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

##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

(창 2:25)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 
 (창 3:7)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**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**

(계 19:7)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 
 (계 19:8) **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**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

<p>(창 3:21)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</p>	<p>(계 19:11)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(계 19:12)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(계 19:13)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(계 19:14)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</p>
<p>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</p>	
<p>(창 3:23)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(창 17:7)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(창 17:8)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</p>	<p>(계 19:7)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(계 19:9)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(계 21:2)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</p>

	<p>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 (계 21:3)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 (계 21:4)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</p> <p>(계 21:6)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 (계 21:7)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</p> <p>(계 21:9)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 (계 21:10)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 (계 21:11)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</p>
--	---

## 울지 말라

###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

(창 49:8)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

(창 49:9) **유다는 사자 새끼로다**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

(창 49:10)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

(창 49:11)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**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**

(창 49:12)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

(계 5:5)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**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**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

(계 19:11)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

(계 19:12)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

(계 19:13) **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**

(계 19:14)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

(계 19:15)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**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**

(계 19:16)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

아멘!  
주 예수여 오시옵소서!